



북극강산

3

주제 108(2019)
루계 제355호 월간

인민의 환희

락천적으로 (♩=126)

작사 차호근
작곡 안정호



1. 그 이름만 불려도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 일어난



천하제일 위인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자부심이여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 -



영광 속에 행복 속에 - 존엄높이 살리라 -

2. 사랑으로 가득찬 그 정도에서
더 밝은 래일을 보네
새 전설로 꽃피는 그 이야기
끝없는 희망을 주네
(후렴)

3. 그 품속에 정으로 뜻으로 뭉친
일심의 힘은 무한타
밝은 태양 빛나는 미래로 가며
승리로 지심 흔들자
(후렴)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한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의료일꾼들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서 정성을 다함으로써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많은 환자
들이 이곳에서 광명을 되찾고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차 례

-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랑과 헌신	3
일 화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은을 내도록	5
물질기술적로대가 강화된다	6
광명을 되찾아주는 곳	7
반 향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	8
치료사업의 더 높은 성과를 위하여	9
그들이 내세운 목표	10
류다른 부름 - 병원촌	12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잊을수 없는 사람들	16
총돌격전에 매진,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18
주체사상이 밝힌 해외교포문제	19
전력증산의 동을 높이 올린다	20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22
다양한 지식을 주는 곳	24
애국의 마음안고 펼쳐가는 푸른 숲	28
여성들도 두뿔세뿔	30
국가상징물들의 의미	31
소나무를 즐겨 그리는 미술가	32



22

조국의 품에 안겨

후대교육에 바치는 진정 34

고향소식

북반은 은정구역사람들 36

편지

아름다운 대동강에서 함께 배를 탑시다 38

인상기

고국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39

평양랭면맛에 반하다 39



고국방문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40

불멸의 명필체에서 출중한 위인상을 보다 (4) . . . 42

동료들과 함께 평양을 찾은 지부장 43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축 (1) 44

민족의 향기

인기를 모으는 부항료법 45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3) 46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3) 48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6) 48

역사인물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49

사화

허백당대사와 힐장사 쌍민 50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방도 51

시효가 없는 죄악 52

서고리폐갱은 오늘도 고발한다 54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대결관동 56

상식

북철에 재발할수 있는 만성질환들 10

삼월삼질 23

조선속담 (완강성) 42

유모아

남의것은 다 좋은줄 아느냐 47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랑과 헌신

언제인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았던 로씨야의 어느 한 신문사주필은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기었다.

《저는 오늘 이 멋쟁이유선종양연구소를 참관하고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녀성들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가 이런 훌륭하고 값진 설비들을 갖춘 병원을 마련한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령도자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씨야의 한 언론인이 쓴것처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는 녀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인간애가 뜨겁게 어리어있다.

주체101(2012)년 6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의해 건설되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치료실들과 입원실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수술장을 최대로 무균화할데 대한 문제와 렌트겐촬영실바닥의 마감처리를 잘할데 대한 문제, 간호원 초소를 사방이 다 보이게 꾸릴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복도벽에 수지단판이나 비닐벽지를 붙일데 대한 문제와 계단란주와 란간을 계단돌과 같은 색깔의 돌로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자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바로잡아주시였다.

시공을 질적으로 할데 대해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우리는 건물을 하나 지어도 손색없이 온전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날 연구소가 갖추어야 할 최신설비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평양

산원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의 주인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도 공사와 관련하여 주인이라는 이 두 글자와 자신들을 련결시켜보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그이이시였건만 녀성들의 건강을 위해 이렇듯 다심한 친부모의 심정으로 헤아려주시였던것이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뿐만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문수지구에 의료봉사 기지들이 일떠서던 나날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모든 병원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이끄시였다.

그 이름도 유정한 옥류아동병원,

모든 치료실들의 설비들과 입원실들의 비품은 물론 병원에 꾸려진 교실들과 어린이놀이장에도 후대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이의 헌신이 깃들어있다.

아동병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신 그이께서는 주체102(2013)년 7월 내리는 비에 옷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질적으로 진행하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병원에 놓을 치료설비들에 대하여 료해하시면서 일군들에게 CT와 MRI설비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아동병원에 그 설비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아동병원은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치료기지인것만큼 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설비를 무조건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구급환자들을 후송할수 있는 직승기착륙장도 예견할데 대해서와 병원과 입원실에

농을 비품과 텔레비존, 랭동기를 비롯하여 구급 소생차, 자동차 등도 배려해주시였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으며 또 아껴서는 안된다는것이 그의 확고한 의지였다.

그날 아동병원건물의 설계로부터 시공, 병원에 갖추어놓을 의료설비들과 비품들에 이르기까지 그이께서 제기하시는 기준은 모두 최고였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고도 못다주신것이 있으신듯 그이께서는 필요한 설비, 예견하지 못한 설비들도 있을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다 제기하라고 각별히 이르시였다.

설계형성안을 수십차례나 보아주시여 이제는 모든것을 환히 알고계시였건만 현장에까지 나오시여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보고 또 보시며 단 하나의 미흡한 점이라도 있을세라 살피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이시였다.

의료봉사기지들의 치료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사소한 애로라도 있을세라 각별히 마음쓰시며 필요한 대책들을 다 세워주시고도 그이께서는 완공된 병원들에서 인민들이 덕을 어떻게 보고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 현지에까지 찾아보시였다.

류경치과병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있는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는것이 알린다고, 류경치과병원을 건설하기 잘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류경치과병원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류경치과병원은 당(조선로동당)에서 인민들에게 마련해준 병원인것만큼 선전용, 광고용 병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류경치과병원을 참관이나 시키는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병원의 일군들에게 당부하시였다.

옥류아동병원을 찾으시여셔도 그이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어린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앓는 어린이들을 잘 치료해주어 그들모두를 나라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병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였으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새로 일떠서는 병원들을 건설중에 찾으시여셔도, 완공된 후에 찾으시여셔도 치료예방사업을 잘하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신 그이이시였다.

완공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크나큰 기쁨속에 인민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류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서면 우리가 최근 몇년사이에 해마다 현대적인 각종 의료봉사기지들을 하나씩 일떠세운것으로 된다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나라살림이 풍족하고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였다.

시련과 난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그이께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넣으시는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것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기때문이었다.

진정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보건산소공장 등이 일떠섬으로써 인민보건사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 오늘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일화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은을 내도록

의약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시며

지난해 1월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약과 고려약들이 전시된 제품견본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지수도 많고 약효도 높다고 하시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과 품질관리를 엄격히 진행하여 의약품의 질을 담보하고있는것을 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제약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에 맞는 통합생산체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구축해놓았을뿐아니라 신약직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선을 진행한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하여 생산량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였고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어 종합분석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약품분석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현대적인 분석설비들을 더 갖추어주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의 생활에서 항시적으로 필요한 대중약품, 상비약품들

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약품가지수를 보다 높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 문제를 비롯하여 의약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한 할머니가 올린 큰절

평양의 문수지구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류경치과병원이 일떠선 후 인민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의료봉사를 받고있었다.

그러던 주체103(2014)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너무도 조용히 류경치과병원을 찾으시였다.

뜻밖에 병원에 찾아오신 그이를 뵈은 의료일군들과 인민들은 걱정의 눈물을 쏟으며 행복에 겨워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불렀다.

그이께서는 저저마다 안겨 드는 인민들에게 어서 치료를 받으라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자고 달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류경치과병원의 진단치료실, 구급치료실, 기공실, 보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하루에 환자들

이 몇명이나 찾아오는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 등을 료해하기도 하시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치료를 받으러왔는가에 대해 다정히 물어주시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 보철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치료를 받고있던 한 할머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결에서 자기가 치료받는 모습을 지켜보신다는것을 알고는 너무도 감격하여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드리며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훌륭한 병원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재삼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보철실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건강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곤 나서 의사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당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니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류경치과병원을 건설하기 잘했다고 기뻐하시며 당(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데서 류경치과병원이 앞장에서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된다

- 김유철 보건성 국장과 본사기자의 문답 -

기자: 오늘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아래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다. 현시기 보건부문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기 위하여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나서고 있지 않는가?

국장: 그렇다. 우리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에 의한 현대적이며 질 높은 의료봉사를 충분히 받게 하자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환자들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정성이 아무리 지극하다고 할지라도 병원의 환경이 좋지 못하고 의료설비들이 환자치료에 따라지지 못하며 해당 약품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못한다면 의료봉사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년간 우리 조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문수기능회복원이 현대적으로 일떠섬으며 보건산업공장, 평양제약공장, 정성제약공장,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들도 훌륭히 건설되거나 개건되어 인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다.

기자: 지금 의료봉사거점들을 개건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있는가?

국장: 지금 보건부문의 모든 의료봉사거점들이 날로 발전하는 세계적수준, 우리 인민들의

시대적미감과 요구에 맞게 위생 문화적으로 더욱 깨끗하고 훌륭하게 꾸려지고있다.

의료봉사거점들로는 중앙의 병원들로부터 시, 군, 리의 인민병원들과 진료소들 그리고 나



리의 도처에 일떠서있는 료양소들을 꼽을수 있다.

양덕군의 온천지구개발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그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답게 건설력량과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것을 전적으로 맡아 올해 10월 10일(조선로동당창건일)까지 이 온천지구를 인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볼수 있는 치료예방기지로 훌륭하게 전변시킬 목표를 세우고 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제 몇해어간에 나라의 모든 의료봉사거점들이 완전히 때 벗이를 하게 될것이다.

기자: 의약품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에서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목표를 내세우고있는가?

국장: 우리는 3~4년어간에 나라의 의약품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효능 높은 의약품과 첨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 목표를 세웠다.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의 전망적발전을 위하여 년차별,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집행정형을 엄격히 총화하면서 강하게 추진시켜 나라의 모든 제약공장들과 고려약, 의료기구공장들을 선진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의약품들과 의료설비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들로 전변시켜나가고 한다.

올해에는 적지 않은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들의 공정설계와 건축설계를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설계가 끝나는것과 동시에 개건공사에 착수하게 될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의약품과 의료기구공장들의 생산지표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고 생산공정들을 통합정리해나가고있다.

기자: 의약품들과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취하고있는가?

국장: 우리는 앞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가지수를 보다 늘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제약공장이나 의료기구공장이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약품과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광명을 되찾아주는 곳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치료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병원이 문을 연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눈병환자들을 치료하여 그들에게 광명을 되찾아주고있다. 물론 그런 치료성과속에는 병원의 의료일군들의 높은 의술과 정성뿐 아니라 첨단치료설비들이 갖추어져있는데도 있다.

병원의 레이저치료기 하나만 놓고보아도 후발 백내장이 생긴 환자인 경우 이 설비로 몇분동안만 치료하여도 병을 고칠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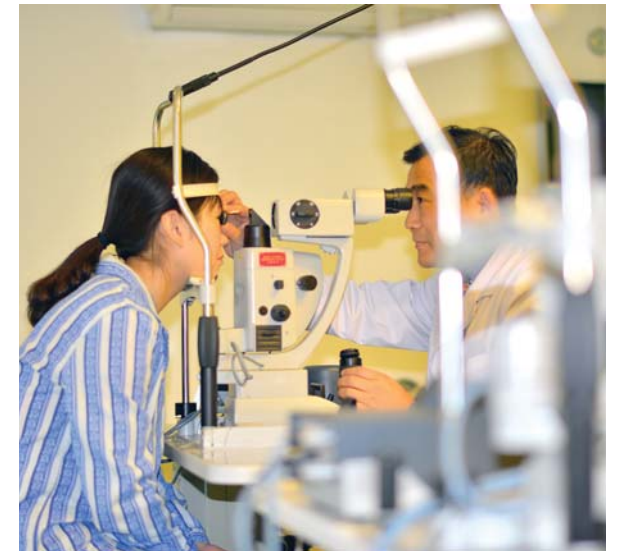
그만큼 병원에는 나라에서 인민들을 위해 마련해준 첨단수준의 치료설비들이 그뿐히 갖추어져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곳 의료일군들이 그에 만족하여 치료사업을 진행한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병원의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이 환자치료에서 더 큰 은을 나타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이곳 의료일군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지난 기간 그들은 자체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의료봉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수많은 해결하여

환자치료에 적극 리용하였다.

여기에서 먼저 꼽아야 할것은 그들이 실천에 구현한 병원정보체계 《눈빛 1.0》이다. 《눈빛 1.0》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자료교환표준을 준수하고있을뿐아니라 병원관리운영과 치료에방단위들과의 호상연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



레이저에 의한 치료

는것으로 하여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의의가 큰 정보체계이다. 기성관례에 따르면 자료교환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자료작업만 해도 몇년이 걸려야 했고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설계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곳 의료집단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짧은 기간에 그것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는 백내장에 대한 초음파 유희흡인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을 연구도입하여 진단과 치료수준을 한계단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치료

곳이므로 최상의 위생조건과 환경을 보장하여 생산물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를 위하여 생산과 검정, 보관, 취급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

서를 세워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질 좋고 효능이 높은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우리 보건부문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드세차게 진행해나갈것이다.

* * *

반향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

평범한 근로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병이 나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 조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탄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조선을 방문한 콩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은 체류기간 자기가 받은 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와보니 느끼는바가 크다. 방문의 나날 체험한 모든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보건분야에서 뚜렷이 파시되고있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물질문화생활보장이 국가적관심사로, 제일증대사로 되고있다. 체류기간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고려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의료봉사기지들을 돌아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인민들의 건

강증진을 위하여 웅장하게 일떠선 병원들의 설비들 하나하나가 매우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료기술수준도 대단히 높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보건사에 류례없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헌법에 무상치료를 받는것을 국민의 기본권리의 하나로 규제하였다. 조선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료봉사망, 녀성의료봉사망, 고려의료봉사망 등 정연한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누구나 나이와 거주지, 직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치료를 받고있다.

외래치료, 입원치료, 왕진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는 물론 진찰, 실험검사, 기능진단검사, 수술도 100% 무료이며 료양소에 오고가는 려비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어 의사가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보건일군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첨단기술에 의거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확립되어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환자가 중앙의 유능한 의료집단의 방조속에 신속히 치료받고있다.》

* * *

높이었고 수많은 의료기구와 의약품들을 새로 개발하여 국가발명권과 창의고안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제9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와 축전들에서 1등을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곳 병원집단이 백내장수술에 쓰이는 전방충진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제력파할수 있고 또 고분자물질의 정제도를 높일수 있는 다기능미크로러파기를 창안제작한것이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에서만 만들고있다는 인공수정체생산설비도 자체로 제작하여 년간 수천개의 인공수정체를 생산하여 다른 병원들에 보내주고 있으며 환자치료에도 적극 리용하고있다.

이것은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은정의 숭고한 뜻이 그 어디보다 뜨겁게 응축되어있는 자기 병

원을 안과부문의 중심으로, 치료수준의 최고로 되게 하기 위해 헌신해온 이곳 의료일군들이 의학과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안아온 결실이다. 하기에 이곳 병원에서는 오래동안 앓을 못 보던 환자들이 밝은 세상을 보는것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많이 태어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얼마전에도 병원에서는 두눈을 실명당할번 했던 통천군의 한 로동자가 무상치료제의 혜택아래 광명을 되찾고 세상에서 인민을 제일로 여기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제일이라고 토로하며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고 한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치료사업의 더 높은 성과를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교원, 의사들이 환자치료사업과 교육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년간 이곳 교육자들과 의료일군들은 종합수술실을 세계의학발전추세에 맞게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갖춘 수술실로 개건함으로써 교육사업과 환자치료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류경안과종합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등 여러 병원들의 성과와 경험들에 토대하여 종전의 낡은 수술실들을 대담하게 들어내고 현대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수술실로 꾸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러나 종합수술실현대화는 시작부터 말처럼 쉽지 않았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온습도를 보장하는 문제,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이곳 교원들과 의료일군들은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조건보장문제들을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수십차례의 협의회가 진행되고 많은 창발적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에 수술실의 현대화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종합수술실에는 비노기, 뇌신경, 심장혈관, 흉부, 복부 등 인체의 각 부분들에 대한 일반수술은 물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첨단수술도 할수 있는 조건이 원만히 갖추

어져있다. 이와 함께 멸균력파처리한 신선한 공기를 모든 수술실들에 실시간적으로 보장해줄수 있는 송배풍체계와 보건산소를 주입할수 있는 배관체계가 갖추어져있어 수술실의 무균화, 무진화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있다.

지금 복부외과학강좌 강좌장 지충사, 뇌신경외과학강좌 강좌장 김영덕, 마취과 과장 리경철 등 이곳 교원들과 의료일군들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종합수술실에서 위암때 인공위형성식위전적출술과 간문부암때 간내담관공장문합술, 취장암때 전위보존식취두12지장절제술을 비롯하여 두개인두종을 비롯한 안상부종양전적출술과 교-소뇌 각부종양전적출술 등 각종 난치성질병들에 대한 난도높은 수

종합수술실에서 복강경수술을 하고있다.



그들이 내세운 목표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 2연구실의 연구사들이 백혈구감소증치료에 좋은 노이트로핀주사약을 개발하였다.

이 약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기능이 상실된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회복시키고 일단 만들어진 백혈구의 세균죽임활성을 높이는 등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백혈구감소증치료약개발을 처음으로 구상한것은 연구실의 지수룡실장이다. 그는 백혈구감소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호소하는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림상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이 약을 개발할것을 결심하고 연구에 달라붙었다.

이러한 그를 연구집단이 도와나섰다.

노이트로핀주사약을 생물공학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은 결코 헛치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이 약의 개발은 미지의 길이나 다름없었다. 이미전에 다른 연구기관들에서도 시도해보았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연구사들

없는것으로 하여 포기하고말았던것이다. 설사 아무리 어렵고 힘든것이라 할지라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되는것이라

면 무조건 만들어내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연구사업의 기준이었다.

기본은 유전자설계였다. 완

전무결한 약을 만들어야 하는 조건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활성을 높일수 있는 유전자배렬을 찾아내고 합성하는

것이 연구사업에서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의 나날속에 그들은 마침내 활성을 높일수 있는 유전자배렬을 찾아내고 합성하여 균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유전자의 활성은 다른 나라의것보다 4배나 높았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인체에서 유전자를 증폭해내는것이 하나의 공인된 법칙처럼 되고있었다. 그러던것을 그들은 시험관내에서 합성해내는 방법에 성공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방법이였다.

그에 기초하여 그들은 정제공정을 세우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합리적인 정제공정을 세우는것은 유전자설계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제하는가에 따라 활성과 순도가 낮아질수도 있었고 높아질수도 있었던것이다. 더우기 약이 인체에 투입되는 조건에서 그 순도가 99.8%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였다.

실패가 잇달았다. 정제과정

에 온도, pH(페하) 등의 조건에 따라 유전자가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났던것이다.

하지만 연구집단은 주저와 동요를 몰랐다. 조정제를 맡은 위수길, 고순도정제를 담당한 강덕만, 활성측정을 책임진 박영철연구사들은 거듭되는 실패와 곱쌓이는 정신육체적피로속에서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연구를 거듭하였다.

애쓴 보람이 있어 그들은 완전무결한 정제공정을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지수룡실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연구성과들을 내놓는데만 있지 않습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것이 우리의 연구목표입니다.》

지금 이곳 연구집단은 새로운 연구과제를 맡아안고 전력을 다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술도 손색없이 진행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얼마전 종합수술실을 찾은 유럽의 한 의학자는 이곳 의사들의 수술수준이 완벽하다고, 수술실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면서 수술집도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보였다.

이보다 앞서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보건성대표단은 병원의 종합수술실과 의사들의 수

술과정을 보고나서 이것만 봐도 조선의사들의 능력을 알수 있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오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 교원들과 의료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교육사업과 환자치료에 대한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과학연구사업과 자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지성

- 꽃가루알레르기아
봄철은 꽃가루에 주의를 돌려야 할 계절이다.

꽃가루가 입안과 코안, 눈에 들어가면 해당 부위가 가렵고 지어 머리아픔과 협심증, 천식 등 일련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계절성질병은 알레르기아 성체질의 사람들이 꽃가루와 접촉하여 생기는 알레르기아반응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될수록 외출을 삼가하고 반드시 외출

상 식

봄철에 재발할수 있는 만성질병들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는 각종 꽃가루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관상동맥경화증

봄철의 기후변화로 관상동맥경화증환자의 병세가 악화될수 있으므로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가도 몸건강 특히 병의 재발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 관절염

관절염환자는 날씨변화에 민감하다.

이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기후가 변하는 봄철에 몸을 덥히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 발과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 정신병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해 3~5월

은 정신병재발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그것은 정신병환자들이 기온, 기압, 습도 등 기상요인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봄철에 이 병을 앓고있는 환자들에게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 * *



평양산원

-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

류다른 부름 — 병원촌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살고있는 김세 환동포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참관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이렇듯 훌륭한 병원을 국가가 인민들을 위하여 세워주었다는것이 참으로 놀랍다. 더욱 놀라운것은 류경안과 종합병원뿐아니라 이 지구에 현대적인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등이 짧은 기간에 신기루같이 솟아난것이다.》

이것은 비단 이 동포만이 터뜨린 격찬이 아니었다. 문수지구에 새로 일떠선 의료봉사기지들을 돌아본 수많은

류경치과병원





김만유병원

예로부터 문수지구는 대동강을 끼고있는데다 강 건너에는 산세수려한 모란봉을 마주하고있어 경치가 이룰데 없는 곳이다.

1980년대초에 현대적인 주택지구를 형성하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에 맞고 도시형성에 어울리게 웅장한 평양산원과 김만유병원이 들어앉게 되었다. 그후에는 고려의학연구원이 일떠섰고 최근 년간에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문수기능회복원,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이 해마다 하나씩 틀지게 들어앉아 지금은

하나의 병원촌을 이루게 되었다.

문수지구의 병원촌은 여러 거리와 교차되어 교통상, 생활상 모든 점이 유리하고 편리한 곳에 자리잡고있다.

인민의 요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발양시키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문수지구에 병원촌이 꾸러지게 된 것이다.

그 누구든 문수지구의 병원촌에 자리잡은 어느

병원에 가보아도 첨단수준의 의료설비들을 리용하여 병치료를 받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고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을 페부로 느낄수 있다.

얼마전 우리가 류경치과병원을 찾았을 때였다.

보철실앞에서 차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있던 만경대구역당상2동에 산다는 한 할머니가 6살쯤 되어보이는 자기 손녀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방금 옥류아동병원에서 이 애의 다리에 난 종치를 치료받고 곧바로 내 이발치료를 받으러왔소.》

할머니는 문수지구에 병원촌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옥류아동병원 등 여러 병원들을 하나하나 꼽아보기까지 하는것이였다.

할머니의 이 말에 곁에 앉아있던 중년녀인이 지난 세기 80년대에는 세 자식을 평양산원에서 낳을 때마다 문수지구로 오군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병이 나도 의례히 전문병원들이 세워진 여기 문수지구로 오게 된다고 하였다.

문수지구의 병원촌,

조선대백과사전에도 올라있지 않는 이 류다른 부름은 오늘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간



류경안과종합병원

직되어있다.

진정 문수지구의 병원촌에 일떠선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어 가고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조국의 모습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더 깊이 안겨주고있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생겨난 이 류다른 부름은 앞으로도 조국인민들속에서 더욱 정당하게 불리워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고려의학연구원



옥류아동병원



문수기능회복원





잊을수 없는 사람들

나는 언제인가 평양에서 까스프로동지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항일혁명시기의 투쟁경험을 두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때 까스프로동지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무장투쟁을 하면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적의 식량을 빼앗아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인민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식량을 대주었다고 하였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할 때에도 인민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상해림시정부나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와 같은 독립군단체들은 저마다 법을 만들어내어 동포들에게서 의연금도 받아내고 군자금도 모집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혁명활동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수 없었다. 인민을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얽어매놓고 장부책을 끼고다니며 누구네 집에서 얼마, 누구네 집에서는 몇원 하는 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원래 우리의 리념에 맞지 않았다. 인민이 주면 먹고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었다.

하지만 인민은 어떤 정황에서나 생사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었다. 인민이 각성되고 동원되어 언제나 혁명가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돌보아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민을 믿었다. 인민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끼니를 굶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우리가 빈주먹을 들고 령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여 승리를 거둬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인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성원한데 있었다. 고유수의 현정경, 김보안, 승춘학, 카룬의 류영선, 류춘경, 황순신, 정행정, 오가자의 변대우, 광상하, 변달환, 문시준, 문조양, 김해산, 리몽린, 최일천 등은 남만과 중부만주지방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도와준 잊을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민들은 자기들이 죽을 먹을 때에도 우리에게만은 밥을 해먹이면서 극진하게 대우해주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는것이 송구스러워 어떤 때에는 일이 바빠 밤을 밝힌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수직실에서 자기도 하였다. 카룬에서 진명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소로 리용되었다면 고유수와 오가자에서는 삼광학교, 삼성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박소구실을 하였다.

내가 삼광학교 교실에서 목침을 베고 잘 때면 현균이 찾아와 성을 내면서 내 팔을 잡아끌었다.

《ㄷ. ㄷ》성원이며 조선혁명군 대원인 현균은 똑똑하고 대바르고 인정이 깊은 사람이었다.

현균의 형 현화균은 고유수에서 농민동맹사업을 하였는데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두 형제가 다 우리의 조직에 망라되어 일하는 사람들인데다가 아버지까지 독립운동을 하는분이어서 그 집에서는 우리를 각별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현균의 아버지 현하죽은 독립운동자들속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있던 인물이었다. 하죽이란 호이고 그의 본명은 현정경이었다. 고유수사람들은 본명대신 그를 하죽선생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현하죽선생이라고 하면 만주지방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현하죽선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고 또 그와 깊은 친분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단순한 친구로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에 뜻을 같이한 동지로서 자주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뜨거운 우애심을 가지고 서로 존경

하고 받들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현하죽선생은 통의부시절의 중앙법무위원장이였고 정의부시절의 중앙위원이었으며 국민부시절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유일당이라고 부르던 조선혁명당의 정치부책임을 맡고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리해도 깊었고 일상생활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을 동정하였으며 그들과 잘 어울리었다.

김혁, 차광수, 박소심동무들이 류하지방에서 사회과학연구회를 내오고 곳곳에 반제청년동맹조직을 꾸리고있을 때 그는 청년들의 계몽을 위해 강사로 자주 출연하였다. 왕청문학원 시절과 화흥중학교시절에 현하죽선생의 강의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후 그를 자주 회상하였다.

내가 고유수에 갈 때마다 현하죽선생은 나를 자기 집에서 재우곤 하였다.

《큰아버지네 집에 온셈치구 마음 폭 놓게.》

선생이 나에게 늘 하는 말이였다. 선생의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여라문살 우였다.

나는 그 집에서 열흘이나 스무날, 지어는 한달이상씩 묵으면서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어느해인가는 고유수에서 현하죽선생의 가족들과 함께 5월단오까지 쇠였다.

사실 그때 형편에서 손님을 하루도 아니고 몇주일씩 재우며 밥을 해먹인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농사를 지어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고 얼마 안되는 식량을 가지고 혁명가들에게 밥을 해먹이고나면 집안사람들은 죽물도 변변히 먹을수 없었다.

현하죽선생의 집에서는 그때 나에게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만들어주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어떤 때에는 닭도 잡아주고 두부와 비지도 만들어주고 근대국도 끓여주었다.

그 집안 녀자들이 두부를 맛느라고 망질을 할 때면 나도 팔을 걷어올리고 달려들어 망돌을 돌리였다. 우리가 망돌앞에 앉아 일을 거들어줄 때마다 스물두세살쯤 나보이는 현화균의 안해 김순옥이 몹시 수집어하면서 얼굴을 쳐들지 못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현하죽선생은 민족주의단체인 국민부에 소속되어있으면서도 자기가 국민부내의 혁신과라는것을 숨기지 않았으며 장차 공산주의운동을 하겠다는것까지도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내가 고유수를 떠난 다음 현하죽선생이 국민부내부에서 벌어진 집안싸움을 피해 서안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장학량의 군대가 그곳으로 가니 선생도 그에게 기대를 걸고 따라간것 같았다. 장학량이 배일감정이 강하였기때문에 그의 우산 밑에서 반일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동3성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상해나 서안, 장사 같은

곳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 외국방문의 길에 올라 렬차나 비행기를 타고 중국 동북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만주의 낮익은 산천을 바라보며 고유수를 생각하고 현하죽선생을 생각하고 선생의 후손들을 생각하였다. 현하죽선생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선생의 후손들은 다문 한 두명이라도 살아있을터인데 왜 종무소식일가, 나는 그들의 주소를 몰라서 속수무책이지만 그들이야 나에게 편지를 할수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사람이 신세를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1990년 봄에 뜻밖에도 현하죽선생의 후손들과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현하죽선생의 만며느리 김순옥녀성은 내가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사용하던 노트룩과 나에게 두부를 만들어줄 때 돌리던 망돌을 60년동안이나 보관하고있다가 우리 혁명박물관에 보내주었다. 그 사연을 담은 글이 길림에서 조선사람들이 발간하는 《도라지》라는 잡지에 실리였는데 우리 《로동신문》이 그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60년동안 소식을 모르던 은인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감회를 억제할수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총돌격전에 매진,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압박속에서도 조국은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으며 대외적권위도 비상이 높아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에 맞게 조국인민들이 더욱 분발하여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돌격전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국가제일주의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전체 인민의 높은 자각과 강렬한 의지를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으로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아가신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그이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 삼천메기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금산포켓갈가공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온 나라에 새로운 비약과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다. 신의주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는 공장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고 삼지연군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서는 삼지연군건설을 통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도 세차례나 찾으신 그이께서는 모두가 대중적 영웅주의, 견인불발의 투지를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투쟁본때,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 우리 식 발전속도를 만천하에 다시한번 과시하자고 건설자들에게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하루빨리 조국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는 인민의 정신력과 창조적열의를 비상이 분발승화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과 비약을 촉진시켰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서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게 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자체의 기술과 연료, 원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어 경제전반을 활성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자동차, 트랙트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고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는 질 좋은 제품생산이 확대되였다. 양어, 축산, 수산, 파수업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국인민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높여 발휘하여 달성한것으로서 끊임없이 비약하는 우리 국가의 기상과 무진막강한 힘이 어떤것인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외교실력으로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라선 조국의 위상을 힘있게 과시하시였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의지를 천명하신 그이께서는 주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파격적인 조치로 여러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조중수뇌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진행하시여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게 하시였다. 오래동안 존재하여 온 불신과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 력사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면서 세계는 무시할수 없는 정치군사강국으로서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조국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격찬하였다.

하기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펼쳐지는 현실을 놓고 세계언론들속에서 《현시대의 가장 출중한 지도자》,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로속한 정치가》 등 그이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오늘 조국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고 우리 조국이 반드시 천하제일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라갈것이라는 확고한 신심을 안고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 총매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주체사상이 밝힌 해외교포문제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으며 적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해외교포들을 가지고있다.

이로부터 해외교포문제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실현의 한 부분으로,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외교포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였고 그를 현실에 구현하시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해외교포문제해결에 관한 과학적인 사상리론을 밝히지 못하였다.

19세기 중엽에 맑스는 이민현상에 대하여서만 지적한바 있었고 레닌은 유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된 사실자료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는 민족이동의 특수한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 이민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시기 그 어느 령도자나 정치가도 해외교포문제에 대한 정확한 리론과 로선을 밝히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실패와 교훈,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의 합법칙성 그리고 이 시기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지 않은 조선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해외의 각지에 흩어져 살고있는 동포들의 생활처지와 반일투쟁기운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해외교포문제를 반제민족해방투쟁의 한 고리로 제기하고 동포들을 반일조국광복전선에 광범히 결속하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맞게 해외교포문제해결에 관한 사상리론을 더욱 발전 풍부화하시였다.

이 과정에 해외교포문제해결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해외교포문제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에서 중요한것은 해외교포문제의 발생근원과 본질에 대한 사상이다.

해외교포문제는 민족문제의 일환이며 민족문제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해외교포문제가 발생되게 된 근원은 다른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에속화정책에 있으며 해외교포문제의 본질은 민족의 한 부분을 이루는 해외교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라는것이다.

해외교포문제의 발생근원과 본질에 관한 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해외교포문제를 정확히 해명한 과학적인 사상으로서 이 문제해결의 근본조건이 명확하게 마련되게 되였다.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주체의 리론에는 이 운동의 주체가 해외교포자신이라는것과 이 운동에 관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문제, 해외교포운동에서 주체를 든든히 세우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 등 해외교포운동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이 빛나게 구현되어 오늘 조국에서는 이 문제가 훌륭히 해결되였다.

조국의 해외교포조직들은 위력한 대중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해외동포들은 참다운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일본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들수 있다.

참다운 해외교포조직으로 결성된 총련은 일본에 있는 각계각층 동포들을 조직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을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조선민족의 해외교포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있다.

해외교포운동은 일본에서만 아니라 조선동포들이 살고있는 세계의 각 지역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에 동포들의 조직이 결성되어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있다.

오늘 해외교포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불패의 보루로 다시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커다란 민족적근기와 자부심을 안고 통일애국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해외교포문제에 관한 사상은 참으로 민족의 자주성문제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로 민



전력증산의 동을 높이 올린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대당 출력을 높여 전력을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전력증산의 비결을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는데서 찾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

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적지 않은 기술혁신안들이 현실에 도입되어 은을 내고있다.

이곳 기업소의 일군인 전승권의 말에 의하면 3호발전기의 현대화와 기포보온재생산공정확립, 호기별생산공급량측정장치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해 완성된것이라고 한다.

기업소의 여러 직장들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직장과 4직장의 로동자들은 발전설비들에 대한 순회점검과 업간점검을 실속있게 해나가는것과 함께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발전설비의 출력을 보다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련이어 내놓아 기업소의 주목을 끌고있다.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할 일념으로 일해가고있는 이 직장들의 모범은 다른 직장, 작업반들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하차직장과 운탄1직장, 주강직장에서도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고있다.

하차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설비의 부속품들을 새롭게 창안제작하였으며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부림시간을 중전에 비해 극력 줄이였다. 운탄1직장에서는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으며 주강직장에서는 주강뿔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타빈보수직장과 5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직장과 작업반들에서도 일어나고있다.

타빈보수직장의 작업반장 강철만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파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신 종업원들의 높은 정신력에 과학기술을 앞세워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6호발전설비 정비기일을 훨씬 앞당겨 끝낸 기세를 늦춤이 없이 4호급관기 보수기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전력생산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고 말하였다.

지금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증산돌격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창의고안을 성공시킨 기쁨을 안고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선교편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질 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기사장 박승룡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은 지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이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제품



그러면서 그는 과학기술을 앞세운 결과 모든 공정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 그대로 직조직장에서는 공장자체의 힘으로 개발한 각종 태환기들의 설비조종 프로그램과 새로운 유재를 도입하여 설비들의 효능과 제품의 실수률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염색, 재단직장에서도 일어나

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다양한 편직물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이 이를 위한 기본담보는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 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고있다. 염색직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소형고온고압염색기를 제작하여 편직천의 색상다양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염색천의 질과 색깔을 끊임없이 개

선하고있다. 재단직장에서도 공장도안실과 기술준비실과의 연계밑에 새로운 형태의 편직물도안에 대한 재단을 과학기술적으로, 질적으로 진행하여 제품의 다양화를 위한 선형공정을 적극 앞세우고있다.

이밖에 1, 2가공직장에서도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매 편직물들에 따르는 가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매달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팀성실로 편직물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국내원료에 의한 발레무용복제작과 수습가지의 날염도안도입, 각종 조기구제작을 비롯하여 제품의 다양화와 그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계속 혁신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식

삼월삼짇날

삼월삼짇날은 지난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봄철민속명절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매해 왕의 참가밑에 삼월삼짇날(음력 3월 3일) 락랑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였으며 잡은 짐승으로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사냥경기를 통하여 무술을 련마하고 체력을 단련하였으며 경기에서 우수한 사냥군을 선발하여 등용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 온달이 사냥경기에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 등용된것이 바로 삼월삼짇날에 있었던 일이었다. 삼월삼짇날의 상무적이며 실용적인 고구려의 풍습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유희적인 성격의 락랑놀이(가)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근세에까지 진행되어오던 삼월삼짇날의 명절놀이는 주로 들놀이

이를 하면서 꽃지짐을 지저먹는 화전놀이가 기본이었다. 어린이들은 여러가지 꽃과 풀들을 꺾거나 뽑아다가 풀싸움을 하였다. 오늘날 삼월삼짇날이 풍습은 없어졌으나 사냥경기에서 진행되던 활쏘기를 비롯한 경기놀이들은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민족체육종목으로 계승발전되고있다.

* * *

다양한 지식을 주는 곳

자연박물관에 동물생태홀과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이 새로 꾸려져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산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자연박물관 4층에 꾸려진 동물생태홀에는 열대산림초원의 다양한 동식물상이 펼쳐져있는데 근 150종에 260여점에 달하는 박제품 및 식물표본들이 박쥐동굴구역, 해양생태체험구역, 육지생태구역 등에 전시되어있다.

참관자들은 동물생태홀의 여러 구역들에 있는 반경화와 박제품, 동물모형, 식물표본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랄리아의 일부 지역들에 위치한 열대산림초원의 동식물상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있다.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체험은 개개의 대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한 실천적이며 생활적인 인식이다. 하여 체험은 소극적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한다.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1)에는 수많은 생물표본들과 함께 다매체편집물을 시청할수 있는 액정텔레비존이 갖추어져있어 지능개발에 도움을 받을뿐아니라 직접 공작실습도 해볼수 있다. 여기서는 학급단위로 참관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담임교원이나 자연박물관 연구사, 해당 부문 전문가들의 지도밑에 문답, 강의 등의 방법으로 천문학, 동물학, 식물학 등과 관련한 학습을 진행하고있다.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2)에서는 다양한 직판물들과 식물표본, 채집도구, 여러가지 유희기재 등을 리용하여 직판교육 및 실물교육을 진행하고있다. 청소년학생들은 화석찾아보기, 나의 동물친구, 동물과의 힘겨루기, 동식물알아맞추기, 우주탐험 등 여러 구역들에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실지 체험해보고있다.

현실감과 생동성을 살리기 위해 벽에 설치된 액정텔레비존에서는 우주여행을 내용으로 한 다매체편집물이 방영되고있다.

봉사원 리수향은 화석찾아보기는 각이한 지질시대에 살았던 동식물들의 화석을 여러 도구를

리용하여 직접 발굴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에게 화석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안겨주고있는데 그들이 실지 자신의 동작으로 직접 찾아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배운 지식을 다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뿐만아니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동식물알아맞추기를 자주 하는 과정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에서

을 통하여 짐승과 새, 꽃과 나무의 그림을 보고 그 이름과 생태적특성을 조리있게 이야기할줄 아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하였다.

동물생태홀과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에서 보통강구역 신원초급중학교 2학년 1반의 학생들이 정보기술실습을 진행하고있었다.





동물생태홀에서

주수경교원은 정보기술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화상편집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사진자료수집을 이곳에서 하고있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 사진기를 들고 자리를 옮겨가며 좋은 화면을 찍기에 여념이 없는가 하면 벌써 《명화면》을 찍고 《동물》과 《힘》을 거론하거나 《우주탐험길》에 오른 학생들도 있었다.

봉사원 박수향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 나도 한몫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라고 하면서 앞날의 역군으로 자라나는 행복동인들이 다양한 지식을 쌓아가는 이곳에서 일하는 긍지가 남다르다고 이야기하였다.

지금 이곳으로는 많은 청소년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찾아오고있다.

글 봉사기자 연 옥
사진 봉사기자 김영호



애국의 마음안고 펼쳐가는 푸른 숲

강동군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산림을 조성하는데서 모체양묘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었다.

최근년간에만도 모체양묘장의 면적확장과 원형삼목장, 태양열 온실건설을 진행하여 나무모증산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지금 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나무모를 키워내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경영소 기사장 정명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군안의 산림실태와 지대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나무심기계획을 더 높이 세웠습니다. 그것을 수행하자면 나무모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나무모증산의 비결을 과학기술에서 찾은 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체양묘장

의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나무모 기르기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그들은 여러가지 식물성농약과 효능높은 성장촉진제들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테라코렘으로 뿌리를 처리하여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과 야외재배장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이용할수 있는 시기를 확정한데 기초하여 일정하게 자래운 나무모들을 야외재배장에 옮겨심는것과 동시에 두번째 생산에 진입하여 한해에 온실에서 2회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나무모생산주기를 훨씬 줄이고있다.

정상적으로 김도 매주고 북주기도 하면서 나무모비배판리에 품을 들이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해 모체양묘장에서는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등의 나무모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은 흑령, 송가, 령남, 하리를 비롯한 군안의 여러 지구에 숲사이양묘장들을 더 조성하고 나무모생산을 경

쟁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 총생산량의 많은 몫을 해결할수 있게 하고있다.

송가지구의 산림감독원 김종수는 여러 산들에 숲사이양묘장을 꾸려놓고 해마다 근 60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담당한 지구는 물론 다른 리들에도 공급하여 산림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는 산리용반 성원들과 함께 정성다해 키운 나무모들을 흙 한점 떨어질세라 정히 떠가지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심고 비배관리도 책임적으로 하면서 그루마다에 깨끗한 량심을 묻

고있다. 뿐만아니라 순환식으로 채벌한 구역들에 대한 나무심기를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송가지구에만도 700정보의 갱목림과 50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이 조성되어 이곳 탄광과 주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다.

열렬한 향토애를 지닌 산림경영소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강동군의 산발마다에는 푸른 숲이 계속 펼쳐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모체양묘장 온실에서



산림조성을 잘하기 위해



푸른 숲을 위해 노력하는 군산림경영소 종업원들



여성들도 두뭇세뭇

조국에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두뭇세뭇 일을 해제끼는 여성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실장 박사 윤정애와 평양양말공장 노동자 박송희도 있다.

과학자의 량심을 지니고



윤정애박사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실장 윤정애는 두 자식과 남편이 있는 가정부인이다. 하지만 그는 한가정의 주부이기에 앞서 한개 연구실을 책임진 일군, 과학자라는 사명과 임무를 간직하고 과학연구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하기에 그는 연구실의 과학자들과 지혜와 열정을 합쳐 균주들의 활성을 종전에 비해 배로 높이였으며 지용성비타민과 영양먹이첨가제도 새로 개발하였다. 원래 지용성비타민과 영양먹이첨가제는 지난 시기 거의나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제약공업과 식료부문, 축산부문 등의 발전에서 제약을 받고있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해결해보겠다고 나섰다지만 누구도 끝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가 처음 지용성비타민연구에 달라붙었을 때 사람들은 누가 파제를 준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하기 힘든 연구과제를 가정부인의 몸으로

할수 있겠는가고 하며 만류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의 연구과제로 정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실험을 위해 평양대흥모피공장에 나갔던 그는 그곳에서 털가죽을 가공할 때 나오는 폐산물인 털이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해에 수십t이나 나오고있었는데 버리다싶이 하고있었다.

그는 국가적립장에서 볼 때 더구나 과학자로서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하여 그는 털에서 아미노산을 뽑고 그것을 리용하여 영양먹이첨가제를 생산할 착상을 안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사실 지용성비타민 연구만 수행하자고 해도 아름답게 아미노산연구와 함께 영양먹이첨가제연구까지 진척시키자니 제기되는 문제는 물론 정신육체적피로는 말할수 없이 컸다. 하지만 그는 강인한 의지로 그 모든것을 이겨내며 끝내는 여러가지 비타민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이어 아미노산연구에서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아미노산을 주성분으로 하고 우리 나라의 원료에 의거한 영양먹이첨가제생산공정을 확립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지금 그가 연구완성한 지용성비타민은 제약공장들과 비료공장, 식료공장들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으며 영양먹이첨가제는 축산, 양어부문에 도입되어 많은 고기와 알, 우유와 물고기를 생산하게 하고있다.

《일밖에 모르는 여성혁신자》

평양양말공장에는 여성혁신자들이 많다. 하루계획을 100%이

상 넘쳐 수행하는것이 범상한 일로 되고있는 이곳에서는 그이상의 계획을 수행했을 때에야 혁신자로 인정되고있다고 한다. 그런 혁신자들을 가리켜 공장의 종업원들은 《일밖에 모르는 여성혁신자》로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준비직장의 박송희가 그런 여성혁신자들중의 한사람이다. 원래 그는 처녀시절에는 소문난 혁신자였지만 결혼후에는 가정일에만 파묻혀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에 대한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비통한 상실의 아픔속에서 자신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바쳤는가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자책감을 안은 그는 더 많은



박송희

양말을 생산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갈 맹세를 안고 다시 일터에 달려나와 그때부터 분발하여 일하고있다.

그는 자기가 다루는 권사기는 물론 해전기 등 모든 기계들에 정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추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그 과정에 전기를 극력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생산성을 두배로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과 작업



국화-목란

을 받아안았다.

그것은 나라를 상징하는 새와 꽃의 의미가 다시금 안겨왔기때문이었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마다 제 나름의 국가상징물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상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나라와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해당 국가의 공식적표징을 두고 말하지만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화, 국수, 국조, 국견과 같

국수-소나무



방법들을 련이어 창조하여 실천에 구현해나갔다. 하여 그는 주체102(2013)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4월까지 앞당겨 수행하였고 9월까지는 2년분 인민경제

국가상징물들의 의미

은 상징물들에는 조국인민들의 성격과 기질, 지향과 념원 등이 그대로 집대성되어있다.

국화 목란꽃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사랑속에 함박꽃나무, 목련화(련꽃과 같은것이 나무에 핀다는 뜻)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검은모루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들에서 목란과 목란속에 속하는 꽃가루화석들이 발견된것은 목란속식물들이 이미 구석기시대이전부터 이 땅에서 널리 자랐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어느 한 책에 목련화는 잎은 감나무와 같고 꽃은 하얀 련꽃과 같다는 기록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박꽃나무로 불리우던 이 꽃에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에서 몸소 《뚝란》이라는 뜻깊은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고 조선의 국화로 정해주시었다.

백두의 흰눈처럼 정갈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빛갈의 꽃잎과 굳세면서도 소박한 모양, 그윽한 향기는 우리 민족의 순결하면서도 고결한 내면세계를 상징하고있다.

조국의 국수인 소나무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다.

세계적으로 해당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나무인 국수는 일반적인



국조-삼삼

국견-풍산개



계획을, 12월에는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으며 다음해부터는 3년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정상화하고있다. 최근에는 자기의 생산목표를 4년분 인민경제

계획수행으로 내걸고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많은 신입공들을 맡아 그들도 혁신자로 키워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경수

로 나무의 고유한 특성과 관상적 가치, 역사적 전통, 종교적 관습 등에 따라 특징의 나무를 신성화하여 정하는 것, 경제적 가치에 따라 해당 나라에서 특별히 많이 재배하거나 크게 혜택을 주는 나무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소나무에는 우리 민족의 넋과 숨결, 인민의 정서와 감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예로부터 절개가 굳고 의리심이 강했던 우리 민족은 나무 가운데서 사시장철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를 매우 사랑하였으며 죽을지언정 변치 않는 굳은 절개와 역센 기상을 소나무에 담아왔다.

조국의 국견인 풍산개는 생김새와 기질이 뛰어난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널리 사랑하여왔다.

풍산개는 성질이 온순하고 령리하며 주인을 잘 따르지만 주인과 자기를 해치려 들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물어메치는 강한 투지와 용맹을 지니고 있다. 풍산개가 사냥군도 없이 송아지만 한 호랑이를 물어메쳤다는 이야기며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잠든 주인을 구원하고 죽었다는 옛이야기는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국조인 참매 역시 용맹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기질을 닮은 것으로 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본사기자 연옥



조선화 《겨울아침》



인민예술가 리경남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인민예술가 리경남선생은 우리나라 화단에서 풍경화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재능있는 화가들의 한 사람이다.

50여년간의 창작활동기간에 그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 풍치수려한 산천들을 편담하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여든을 바

소 나무 를 즐겨 그 리 는 미 술 가

라보는 지금에도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아름다우면서도 힘있고 여운이 있는 그의 작품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이 흘러나오게 하고 있다.

특히 그가 그린 작품들중에는 소나무를 그린 조선화들이 많은데 이 작품들은 더욱 사람들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리경남선생의 작품들은 하나와 같이 조선화의 화법에 정통하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킨 참신한 그림들이다. 그는 풍경화중에서도 소나무를 많이 그리는데 그가 그린 소나무그림들은 대담한 구도형상과 집중과 함축의 원리를 잘 활용한 것으로 하여 한번

보면 또 보고싶은 마음을 금할 수 없게 한다.》라고 만수대창작사 실장 인민예술가 최창호는 말하였다.

리경남미술가는 소나무를 그리기 위하여 소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다 찾아다녔다.

그가 많이 걸을수록 화판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계절의 소나무들이 그려지곤 하였다.

그는 소나무가 많은 평양의 모란봉에도 줄곧 오르곤 하였다.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이나 사진기를 안고 모란봉에 올라가서는 날씨관계에 따르는 소나무를 세세히 관찰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도 찍었다. 이제는 여러 자연환경속에서의 소나무를 보지 않고도 그릴 정도이다.

그는 자매예술에 대한 조에도 깊다. 그에게는 자그마한 수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머리속에 피륙 떠오르는 령감이나 명구들, 유모아들이 적혀지곤 하는데 오랜 창작생활과 함께 그 수첩도 수십권으로 불어났다. 그는 그것을 제일 큰 재부로 여기고 있다.

그 수첩의 갈피에는 소나무에 대한 시도 있다. 평평 눈이 쏟아지는 날 이른새벽 모란봉에 오른 그는 장설을 떠이고도 푸름을 잃지 않고 곳곳이 서있는 소나무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구름을 치뚫을듯 서있는 나무는 많아도 사시장철 강직한 절개와 의지를 안고 변함없이 서있는 나무는 소나무 뿐이어서 그런지 그의 입에서는 시가 줄줄이 나왔고 화판에 담은

손은 일필휘지로 내달렸다. 눈속에 파묻혀도 그 푸름을 변치 않는 소나무에 대한 시와 조선화 《겨울아침》은 이렇게 창작되었다. 이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조선화 《모란봉의 소나무》, 《눈덮인 소나무》, 《소나무와 매》, 《사철 푸르름 변치 않는 소나무》 등도 다 그렇게 창작된 작품들이다.

그는 이외에도 다른 풍경화 작품들도 많이 그렸다.

참신하고 기발한 구도와 밝고 선명하면서도 진중한 색조화, 힘있고 활달한 붓다름새로 화면을 구성하고 집중과 함축의 형상원리를 구현하고있는 그의 작품들은 하나하나가 다 품위있고

후대교육에 바치는 진정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 각자가 쌓여져있다. 여러명의 교원들이 거기에서 저마다 미끈한 각자들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리영희교원만은 남들이 고르다 남긴 옹이가 많고 짤막짤막한 각자들만 한아름 걸어안았다.

《그런건 어디에다 쓰자고...》

《아깝지 않아요? 이런것도 다 쓸데가 있어요.》

공명되는 말소리와 함께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피아노학부 교원인 부교수 리영희는 잠자리에서 후닥닥 일어났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꾸 꿈이 학부의 김주연학생과 관련된다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교원들의 말밖에 자주 오르는 학생이었다. 그러다나니 그를 맡았던 전공교원은 아예 손을 든 상태였다.

언제인가 학부적으로 김주연학생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적이 있었다.

그때 리영희교원이 선뜻 그를 자기가 한번 맡아

보겠다고 나섰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단지 리영희교원은 주연학생에게서 무엇인가 남다른것을 발견하였기때문이었다. 옹이 많은 나무처럼 결함은 있었지만 주연학생이 타는 피아노소리만은 다른 학생들보다 유별했다. 그가 피아노를 탈 때면 울리는 음색에서 리영희교원은 학생의 마음속에 내재하고있는 풍부한 정서를 느끼



리영희(가운데)

개성적이다. 이렇듯 높은 경지에 이른 그의 작품들은 국가미술전람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십점의 작품들이 국보적작품으로 등록되어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었다.

그는 주체79(1990)년 이팔리아에서 진행된 제12차 국제수채화전람회에서 특등상을, 주체95(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세계문화박람회에서는 박

람회상을 수여받았으며 중국, 로씨야, 뽐스까,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그의 개인전람회들도 진행되었다.

주체86(1997)년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수여받은 그는 오늘

였던것이다.

다른 사람이 타는 피아노소리만 듣고도 상대방이 자라온 가정환경이며 그의 지식수준, 마음속감정을 헤아려보는것은 리영희교원이 50여년간 터득한 비법이였다.

하여 그는 주연학생이 앞으로 훌륭한 피아노연주가 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그를 맡아안았으며 그에게 잠재되어있는 재능이 깡그리 발휘되도록 열정을 다해 피아노수업을 진행하였다.

한번은 학생이 그의 마음을 리해하지 못하고 피아노연주를 형식적으로 한적이 있었다.

그때 리영희교원은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연학생, 내가 일본에서 살 때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피아노를 배우도록 해주느라 잘 먹지도 입지도 못했다. 나뿐이 아니라 우리 다섯형제모두가 배우도록 하다나니 돈이 엄청나게 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힘들면서도 피아노를 배우게 하느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처녀때 부자집들에 우유배달을 하면서 그 집들에서 울리는 피아노소리에 마음이 끌려 일을 끝내고는 문앞에 서있었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식들을 낳으면 피아노를 꼭 배워주리라 결심했다는 것이였다. 그런데 조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모든 학생들이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에 의해 돈 한푼 내지 않고 재능을 꽃피우더구나. 그 품에서 나도 금성중학교(당시)와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서 피

아노를 마음껏 배울수 있었다. 너와 나 우리모두를 키워주고 지켜주는 조국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리영희교원의 말은 김주연학생을 분발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날이 갈에 따라 학생의 피아노수준은 발전하였으며 생활에서도 동무들의 모범이 되었다. 대학졸업을 앞두었을 때에는 2. 16예술상개인경연에서 피아노협주곡 《백두산의 눈보라》를 훌륭하게 연주하여 전문가들과 관중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며 입선하였다.

리영희교원이 키운 주연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이름있는 예술단에서 배우생활을 하고 있다.

주연학생뿐아니라 그가 품들어 키운 학생들속에는 국제청소년쇼팽피아노콩쿨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들도 있으며 많은 제자들이 조국의 중요예술단체들에서 활약하고있다.

리영희교원이 신입생들을 대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다.

《진반을 두드린다고 소리가 나오는것이 아니다. 피아노소리는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자기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는것과 함께 자매예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정서가 흘러넘칠 때 피아노 소리는 언제나 아름다와질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슬기

도 청춘의 기백과 열정에 넘쳐 주옥같은 풍경화작품들을 련이어 창작해내고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소나무 화가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것을 부인한다. 왜냐면 이 나라의 붓을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소나무를 그리며 미술의 뜻을 키웠고 또 지금도 소나무를 그려가고있기때문이다. 나는 다

만 소나무를 사랑하는 미술가들중의 한사람일뿐이다.》라고 리경남미술가는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조선화 《소나무와 III》



조선화 《모란봉의 소나무》



조선화 《눈덮인 소나무》



복받은 은정구역사람들

인 지구환경정보연구소의 박사 부교수 한철훈은 우리를 반겨맞아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도 위성과과학자주택지구가 완공되었을 때 저의 집에 찾아오시어 친부모의 심정으로 매 살림방들을 돌아보시면서 생활상편의를 헤아려주시고 매 세대들에 텔레비존과 이불, 집기류들을 놓아주도록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에게 새 살림집을 안겨주시고도 못 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그날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그의 모습은 진정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고, 자기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도 없을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감동의 목소리는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위성동 17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지질학연구소 실장인 박사 부교수 오광석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그는 과학자의 존엄이 돈에 의해 룡락되는 자본주의일본땅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하늘같은 은정을 받아안았다고 하면서 과학자들에게 돌려지는 사랑과 배려를 한시도 잊지 않고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과학자들을 위해 품들여 꾸려진 국가과학원 위성과학자병원에서도,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들에서도 고마움에 넘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국가과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입구에 있는 대형속보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속보판에는 자기 령도자의

봉사시설들과 과학자살림집들의 일부



국가과학원에서

은정구역은 조국에서 과학지구로 잘 알려져있다. 얼마전 우리는 과학지구의 모습을 지면에 담기 위하여 이곳을 찾았다.

우리와 만난 은정구역인민위원회 사무장 강문철은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을 위해 베풀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참으로 뜨겁다고, 은정구역도 고난의 행군시기 그이께서 과학자들의 연구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과정에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있는 국가과학원과 리과대학, 위성과과학자주택지구의 여러 봉사시설들과 살림집들 등을 바라보니 모든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띠고 안겨왔다.

사무장은 오늘 은정구역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크나 큰 사랑속에 선경으로 전변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성과과학자주택지구로 이끌었다.

수집개 호동의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편의봉사시설들 등이 종합적으로 들어앉은 주택지구는 말그대로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위성동 16인민반 1층 1호였다. 집주인

사랑과 은정에 보답해가려는 이곳 과학자들의 높뛰는 숨결이 반영되어있었다.

111호제작소 집적회로설계실에서 세계적수준의 집적회로들을 설계완성하였다는 소식, 동력기계연구소 내연기관연구실에서 새형의 화물자동차지구개발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또다시 새형의 대형러객버스생산을 위한 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다는 소식 등 성과는 수없이 많았다.

우리는 미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 연구사들도 만나보았다.

실장 리인철은 우리에게 지금 과학원의 과학자, 연구사들의 탐구전, 창조전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다고 하면서 자기 실에서도 최근 양어의 집약화를 담보할수 있는 고려참가제를 연구개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지금 실안의 모든 성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첨가제를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전국의 양어장들에 나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과학기술적문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었다.

복속에서 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리는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려고 심장을 불태우는 그들



은정구역 위성초급중학교에서

이였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들러본 연구소들마다에서도 볼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복받은 은정구역의 과학자들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게 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환경공학연구소 실장 조형찬의 가정





81 Greenough St Brookline, MA 02445_6152
U. S. A. 림 램씨삼촌 앞

아름다운 대동강에서 함께 배를 탑시다

보고싶은 삼촌,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활기발랄한 쌍둥이 두 딸도 다 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7년전 평양에 왔던 삼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꿈에도 보이군 합니다.
재작년에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선생이 평양에 온 기회에 삼촌의 소식을 전해주어 정말 반가웠었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워지는게 혈육인가 봅니다.



삼촌 역시 이역에서 우리 생각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촌, 우리는 모두 건강하여 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양자동차기공장에서 직장장으로 일하고있고 안해도 피복공장에서 직장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부부가 다 직장장이니 정말 바쁩니다.
그러다나니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집안살림을 거의 다 도맡아하는데 우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면 어머니는 두 직장장을 섬길래 혼난다고 우스개소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을 좋아한다고 메주도 빚고 우리 부부의 입맛에 맞는 찬들을 하나라도 더 해주기 위해 마음쓰고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솜씨가 소문이 나 동네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와서 메주담그는 방법이랑 여러가지 요리를 만드는 법이랑 강습을 받는 정

도입니다.
삼촌도 한번 평양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만든 메주장과 요리들을 맛보십시오.
참, 삼촌이 제일 근심하는 문제를 잊을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건강문제말입니다.
두차례에 걸쳐 심장수술을 받은 집사람은 지금 후유증없이 건강해서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평양에 왔을 때 삼촌은 심장수술이 얼마나 비싼 수술인지 아는가고 하면서 저에게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가고 물었었습니다. 삼촌의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코마루가 찡하고 뜨거웠듯이 고여올라와 더 말을 못했습니다.
조국에서는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기때문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승모관협착증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섬쩍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돈 한푼 내지 않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완치된 후에도 의사선생님들의 관심속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삼촌도 아시겠지만 조국에서 이런 일은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물론 저도 늘 고마운 조국에 무엇인가 보답할 마음을 안고 살고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아들 지운이는 지금 군사복무를 잘하고있습니다.
그 애가 군대에 나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큰할아버지가 요트타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한번 같이 타자고 약속했는데 그날을 앞당기겠다고 하면서 집벽에 바다를 항행하는 배그림을 찍 걸어놓았습니다.
삼촌,
그 마음은 지운이만이 아닌 우리 가정의 하나와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삼촌과 함께 아름다운 대동강에서 희열에 넘쳐 배를 탈 상봉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삼촌, 앓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2동 50인민반
림원찬조카로부터

인상기

고국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평양메기공장을 돌아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감동은 공장이 크고 현대적인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공장참관과정에 들은 이야기였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치신 헌신의 날과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세차게 울려주었던 것이다.
말이 그렇지 한 나라의 령도자가 인민들의 식생활문제에까지 관심을 돌린다는것은 쉽지 않다. 그분들께서는 그 어디를 찾으시여도 인민들의 생활부터 먼저 료해하시고 가정들에도 들리시여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 보살피시였다. 정말 놀라왔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일이기때문이었다.
그러나 고국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의 관계가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인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있는것이 바로 고국인 것이다.
10여차례나 고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이것을 절감할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고국을 방문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새 힘이 솟는것을 느끼군 하는 나다.
인민을 제일로 여기는 이런 나라를 고국으로 둔것을 나는 자랑으로 여긴다.
나는 고국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고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결심이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민족의 녀를 심어주어 그가 앞으로 커서 고국을 위한 일에 몸을 담도록 하겠다.

중국 단동조선족기업가협회 서기장 박광길

평양랭면맛에 반하다

나는 처음으로 고국에 왔다.
오기 전에 고국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지만 내가 항상 잊지 못해한것은 40년전에 고국을 방문 하였던 할머니가 가져온 고국의 잡지였다.
어릴 때 나는 그 잡지를 즐겨보았으며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고국 하면 그 잡지가 먼저 떠올랐고 거기에서 보았던 고장들과 사람들의 얼굴이 되새겨지군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평양에 오니 그때 잡지에서 보았던것과는 너무도 몰라보게 달라진 고국의 현실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어디 가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거기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었다.
고국의 음식 또한 별맛이었다.
특히 평양랭면의 맛은 듣던바 그대로 천하 으뜸이었다.
사실 지난해 4월 관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남 수뇌상봉때 만찬에 오른 평양랭면을 보며 나도 한번 먹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 민족음식이 있다는것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참 한심했다는 생각까지 든다.
고국에 가면 평양랭면을 꼭 맛보자고 생각을 품고있던 나였다. 그런 평양랭면을 나는 두그릇, 세그릇이나 먹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슬슬 넘어가는 평양의 특산인 평양랭면을 매일 먹었으면 좋겠다. 평양랭면맛에 나는 완전히 반했다.
나는 집에 가면 고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것을 집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주며 고국과 멀리 떨어져 살아도 나를 비롯한 우리 가문이 고국을 위해 많은 일들을 찾아하도록 하겠다.
고국에 계속 오고 싶다.



로씨야 우쭈리스크시
허 테니스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 제31차 재중동포참관단 -

지난해 가을 동주봉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31차 재중동포참관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세계의 명산 금강산에

올라 하늘을 찌를듯이 솟은 1만 2천봉우리들과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 폭포들과 담소들, 절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다양한 동식물상 등

을 보며 그림같이 아름다운 절경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서로마다 사진을 찍어 남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인식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베이징시 지부장은 사진속에 동료들의 모습을 담느라 바쁘게 뛰어다녔다. 그들의 모습은 금강산구경도식후경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먹은듯 하였다. 등산을 끝내고서야 그들은 목란관에서 푸짐한 식사를 하였으며 금강산온천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다. 동포들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도 참관하였다. 조선무용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손풍금소조실을 비롯한 여러 소조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재능의 노래를 한껏 펼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소조원들과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조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결같이 말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펴들기도 하였다. 동포들은 궁전극장에서 학생소년들이 준비한 공연도 감상하면서 열렬한 박수와 꽃다발로 그들의 공연성가를 축하해주었다. 이외에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관문점을 참관하였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불멸의 명필체에서 출중한 위인상을 보다 (4)

중중첩첩 난제와 장애로 엉켜져 풀기 힘든 화해와 통일의 길을 민족자력으로 기어이 열어가시려는 높은 책임감, 분렬로 온갖 고생과 비극을 다 겪은 겨레에게 전쟁이 없는 새세상을 안겨주시려는 뜨거운 애국애족의 열망과 의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위인의 명필체가 아닐수 없다.

그분의 명필체를 자자구구 새기면 민족이 나아갈 길이 환히 보이고 북과 남이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 뚜렷이 안겨온다. 누구나 그 불멸의 금언앞에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애국애족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게 된다.

그래서 이남의 한 통일인사가 《국무위원장님의 명필체는 우리 민족이 언제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글밭이다. 그 뜻을 따를 때 누구나 애국에 살고 통일에 살수 있지만 그에서 탈선하면 누구든지 애국애족의 길을 걷게 된다.》고 토로했는가싶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통일운동사를 보면 동족을 배척해온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말로가 비참하였다.

이남보수의 원조인 리승만이 《북진통일》을 떠들며 동족과 대결하다 하와이로 쫓겨가 무주고혼이 됐고 5. 16쿠데타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승공통일》을 부르짖던 박정희는 심복의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했다. 12. 12숙군쿠데타로 권력을 차지하고 군부독재의 연장으로 《체제통일》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전두환이나 로태우도 결국은 감옥행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격동적인 6. 15시대를 결판내고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대결정책으로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리명박도 오라를 지고 감옥에 처박혔고 일개 선무당의 요설에 놀아나 《북체제붕괴》망명에 사로잡혀 대결광기를 부리던 박근혜도 초불항쟁에 의해 탄핵당해 비참한 옥살이신세를 면치 못했다.

오늘의 민족화해흐름을 《위장평화쇼》로 들먹이며 《색갈론》을 부르짖던 《자유한국당》도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해 사상최대의 몰락

위기에 처했다.

력사는 분단에 기생하여 권력과 부귀를 쫓는 정치간상배들은 반드시 력사의 징벌을 면치 못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명필체를 우러르며 우리 겨레가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할 민족단합의 구심은 누구이시며 민족화해와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폐부로 새겨안고있다.

최근 남녘판도는 물론 해외동포사회에는 **김정은** 최고령도자님께서 일단 결심하시어 조선반도에 깃든 화해와 평화의 봄기운이 반드시 풍요한 열매로 이어지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급속히 확산되고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님에 의해 패권과 불의가 횡행하는 구시대가 정의롭고 공정한 새시대에 자리를 내주게 될것이라는 국제정치가들의 분석도 주목을 끌고있다.

오늘 세계가 앞을 다투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민중을 사랑하시는 유능한 정치가》, 《2018년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적지도자》, 《합리적인 세계지도자》 이시라고 격찬하고있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적대전환의 중심에 거연히 서시어 민족과 세계정치를 견인하시는 최고령도자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운명과 래일을 책임지시고 광명한 미래로 이끄실 절세의 영걸이시며 그분을 모심은 우리 민족의 무상의 행운이고 공지이다.

겨레여! **김정은** 최고령도자님의 명필체에서 비쳐오는 절세의 위인상을 우러르며 그분을 따라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해 줄기차게 매진하자.

바로 여기에 애국애족의 참뜻이 있으며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통일강국의 미래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끝)

재카나다동포 고진호 (2018년 7월)

없음을 비겨 이르는 말.

- 소별은 단김에 빠라

어떤 일이든지 생각났거나 착수한 김에 또는 열이 올랐을 때 기세를 늦추지 말고 내쳐 해치워야지 미루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 *

동료들과 함께 평양을 찾은 지부장

조국에 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베이징시지부 지부장 서인석 동포를 우리가 만난것은 지난해 10월초였다.

같이 온 10여명의 동료들의 평양방문모습을 사진기에 없없이 담아가는 서인석지부장의 모습은 펍 인상적이였다.

우리가 지부장선생님은 사진에 호가인 모양이라고 하자 그는



서인석지부장과 그의 안해

그저 웃음으로 대답할뿐이였다.

오히려 옆에 있던 총련합회 사무국장 동주봉동포가 그를 대신해주었다.

《지부장선생처럼 웅심깊은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그는 공화국창건 70돐행사에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알고싶어하는 동료들을 위해 행사에 참가하는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동료들과 자기 안해를 데리고 평양으로 오게 되였습니다. 그는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는 사진이라도 보이자고 저렇게 극성입니다.》

동주봉사무국장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울려주었다.

자기보다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부장,

사실 해외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늘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으로 가고싶은 마음이 간절한것이다. 하물며 조국에서 큰 행사가 진행될 때 거기에 참가하고싶은 심정이야 누군들 굴뚝같지 않으랴.

그러나 서인석지부장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된 것이였다.

그러다나니 그는 중국 베이징에 출장을 오는 조국사람들을 자진 마중하고 바래우며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도맡아하면서도 언제나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번 조국방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조선에 대한 나쁜 선전에 인이 박힌 동료들에게 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원심을 썼다.

금강산에 가면 금강산과 관련한 유래, 전설,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주었고 오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기념비적전축물들이며 아름다운 명승지들의 경치를 사진기에 담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적대세력의 끈질긴 제재압박책동속에서도 낱알이 발전하는 조국의 현실은 물론 음식에 이르기까지 동료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할때에도 그는 동료들에게 조선에서 실시되는 전반적무료의무교

육에 대해서와 누구나 재능을 꽃피울수 있게 여러곳에 꾸려진 과외교양기지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궁전의 조선무용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손풍금소조실을 비롯한 여러 소조실들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는것을 잊지 않았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동료들의 반영은 대단했다.

그들은 조선의 우월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에 대하여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그리고 약동하는 조선의 기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난 기간에 들은 선전이 너무도 허위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지부장의 마음은 기뻐다.

우리가 지부장과 헤어지면서 조국방문이 기념이 되게 지부장의 모습도 사진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자 그제야 그는 사진기를 벗어 우리에게 넘겨주며 그럼 한장 찍어달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내 얼굴은 중요치 않으니 아름다운 조국의 한 부분이라도 더 나오게 찍어주십시오. 이번에 찍은 사진들을 동료들에게는 물론 다 인터넷에 올려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겠습니까.》

조국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오르면서 서인석지부장은 우리에게 다음번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조국에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임향심

- 범 무서워 산으로 못 가라

어떤 곤난이나 난관이 있다 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병풍에 그린 닭이 왜를 치고 우는한이 있더라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코》라는 뜻으로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일

조선속담 (완강성)

이 생길지라도 기어이 해내겠다는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정신을 가다듬으면 바위라도 뚫는다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축 (1)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축은 봉건사회의 성격과 통치체계, 당대 이룩된 생산력과 과학기술적성과에 토대하면서 살림집 건축과 도성건축, 궁전건축, 루정, 절간과 탑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살림집건축은 당대 사회의 계급신분관계, 생산력발전수준, 종교미신적영향밑에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받으면서도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로동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 봉건통치배들은 집권초기부터 신분과 계층에 따라 살림집부지의 크기를 법적으로 제한규정하였다. 당시 봉건통치배들은 소위 《검박》을 표방하는 유교적관념의 영향하에 살림집에 칠장식, 단청장식 그리고 일련의 조각장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살림집들은 지리적 및 기후적조건에 맞게 평면류형상 크게 외통집과 량통집, 세겹집으로 나누어져 건설되었다.

살림집건축에서 특징적인것은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으로써 조선살림집은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띠게 되었다.

살림집은 당시의 생활상요구에 맞게 건설되어 주로 단층전개형으로 되었고 방들은 토방 또는 퇴마루로 편리하게 연결되었다. 그리고 온돌에 앉아 생활하는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에 맞게 창문턱을 낮게 하고 모든

가구들의 치수, 형태도 리용하는데 편리하고 보기 좋게 정해졌다. 특히 온돌방에서의 생활에 맞게 방바닥을 깨끗하게 다루는데 각별한 관심이 돌려져 방바닥에는 장판을 하거나 돛자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깔개를 깔았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살림집들에서는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의 기후적차이를 고려하여 살림집의 구조와 평면상에서 지방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도성(도시성)건축도 발전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도성들은 외겹성, 두겹성, 세겹성이었는데 한양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성들은 외겹성이었다. 이것은 여러겹성으로 되었던 이전 시기의 평양, 부여, 개성의 성들과는 다른 특징으로 된다.

도시주변에도 별도로 성을 쌓았는데 한양성에서는 동남쪽과 북쪽에 각각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쌓았고 나라의 주요요충지들에도 일련의 방어시설들이 건설되었다. 두겹성, 세겹성을 건설하고 도시주변에 진성을 쌓아 위성방위체계를 갖춘 도시방어시설들은 고구려때 창조된 도성제도가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영향을 미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도성의 성벽에는 4개의 큰 성문을 비롯한 여러개의 성문, 수구문, 암문 등이 건설되었으며 성벽단면의 치수와 형태가 변화되었다. 한편 이전에는 성벽을

높게 하는데 치중하였다면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는 전쟁에 포화력이 적용되는 새로운 전법에 맞게 그 두께를 두껍게 하는데 큰 관심이 돌려졌으며 이전에는 성벽의 바깥구배를 밀으로 내려가면서 급하게 하였다면 조선봉건왕조 후반기때부터는 성벽의 중심부를 안으로 휘어지게 쌓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압력에 의하여 성벽의 가운데가 무너져나오는 현상을 미리 막고 적들이 기여오르지 못하게 하는데 유리하였다. 이것은 성벽시설과 구조, 형식에서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것을 보여준다.

력대 봉건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봉건국가가도 집권초기부터 왕궁건설에 큰 관심을 돌려왔다.

이 시기 궁전은 크게 네가지 즉 정궁, 리궁, 행궁, 별관으로 나누었다.

궁전은 수도 또는 지방에서 중심적이면서도 가장 경치좋은 곳에 배치되어 건설되었다.

앞쪽에 정전, 안쪽에 침전을 배치하게 궁전의 영역계획을 하고 영역별로 건축형성을 특징있게 한것은 삼국시기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였지만 궁성을 궁담으로 두르고 성문식궁문을 세우며 입구구획에 명당수가 흐르게 하고 주요건물의 기단을 높이 둔 구어 장식한것 등은 조선봉건왕조시기 궁전건축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이었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조휘남

민족의 향기

인기를 모으는 부항료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이번 호에 병치료와 예방에서 효과가 큰 부항료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항료법은 부항단지안의 공기를 밀어내어 압을 조성한 후 그것을 치료부위(상처자리, 침혈위치 등)에 붙여 국부적인 충혈 혹은 어혈을 형성해줌으로써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부항료법은 치료기관들뿐아니라 일반가정들에서까지 널리 활용되고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부항료법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기 위해 고려의학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홍성화의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항료법은 조작이 간단하고 그 응용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고 휴대에 편리합니다. 보다는 치료효과가 빠르고 사용상 안전하며 질병치료와 예방범위가 넓고 부작용이 없는 등 우월한 점이 많습니다. ...》

그는 치료여가시간에 부항료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한 후 우리에게 몇해전에 출판된 《부항료법과 응용》이라는 도서를 주며 참고하라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도서를 읽고서야 부항료법에 대해 어느 정도 리해를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부항을 동물의 뿔로 만들어 리용하다가 토기굽는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토기부항을 위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부항료법에 쓰이는 상용도구로는 우각단지(소뿔), 토기단지, 참대단지, 나무단지, 유리단지, 금속단지, 공기뽑기단지, 다기능부항기구 등을 꼽을수 있는데 오늘날 사기단지나 유리단지와 다기능부항기구가 사람들속에서 가장 널리 리용되고있습니다.

《동의보감》과 같은 여러 의학교전에 부항료법의 출처와 형태, 치료병증범위, 조작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는것으로 보아 부항도구의 제작, 응용이 바로 고려시기에 광범히 보급되고 외과병증으로부터 내과병증의 치료에 로까지 발전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항료법은 해독, 피순환개선, 물질대사촉진, 면역능력제고, 근육관절기능회복, 아픔완화 등

과 같은 작용 그리고 혈압과 호흡기 및 소화기, 신경, 내분비를 비롯한 계통들에 대하여 조절작용도 나타내고있습니다.

부항료법은 단순하게 독을 흡수하고 농을 제거하는것으로부터 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에서의 치료와 예방에 이르기까지 활용되게 되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부단히 개조되고 발전하면서 치료범위가 넓어졌으며 고려의학의 리론적인 기초우에서 현대과학기술을 리용하여 질병치료모리에서 한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항료법의 조작방법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환경은 조용하고 신선한 공기, 광선, 온도가 적당한 실내를 선택하며 부항치료때 환자는 몸이 편안하고 오래동안 유지할수 있게 그리고 의사가 조작을 험하게 할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음 환자의 병상태와 부위에 따라 적당한 직



경의 부항단지를 선택하고 치료부위를 로출시킨 후 깨끗이 소독합니다.

불부항을 붙이려고 할 때에는 알콜에 적신 솜 혹은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단지안에 넣고 신속히 치료부위에 부항단지를 가져다붙입니다. 다기능부항기구로 치료를 하려고 할 때에는 부항단지를 치료부위에 대고 공기뽑기장치를 부항단지의 발브와 맞춘 다음 당김대를 힘껏 당겨 피부가 0.5~1.5cm정도로 두드러져나올 때 장치를 분리하면 됩니다.

부항단지는 아픈 부위에 직접 또는 조금 떨어진 곳에 붙일수 있으며 병조부위의 특징에 따라 여러개의 부항단지를 쓸수도 있습니다. 부항을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3)

- 묘향산 -

묘향산은 평안북도 향산군과 구장군, 평안남도 녕원군, 자강도 희천시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여 자리잡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묘향산이라고 불렀다.

묘향산은 웅장하고 기묘한 봉우리들과 울창한 수림, 계곡의 맑은 물과 폭포들, 여름철의 짙은 녹음과 가을철의 불

타는듯 한 단풍, 겨울철의 설경 그리고 여기에 못새들의 지저귐과 여울물소리 등이 한데 어울려 독특한 절경을 이루고 있다.

원만봉, 천랍봉, 향로봉과 인호대, 백운대는 웅장한 산악경관을 이루고 깎아지른 층암절벽과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 또한 황홀경을 펼치고있다.

그리고 봉우리들사이에는 상원동, 만폭동, 천태동, 칠성동

을 비롯한 크고작은 골짜기들이 있고 비선폭포, 금강폭포, 대하폭포, 산주폭포, 룡연폭포, 9층폭포, 이선남폭포 등 많은 폭포들이 다채로운 풍경을 이루고있다.

이밖에도 묘향산지구에는 지하명승으로 이름난 룡문대굴과 백령대굴이 있으며 11세기 초 우리 민족의 건축술을 대표하는 보현사를 비롯하여 조선봉건왕조의 실록을 보관하였

묘향산의 봄



보현사의 대웅전



만폭동



불인채로 이동하거나 균일하게 흔드는 방법은 립상치료효과를 높이게 합니다.

부항치료시간은 일반적으로 10~20분정도입니다.

부항을 땀 때에는 한손으로 부항단지를 약간 경사지게 하고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을 입구의 변두리쪽에 대고 피부를 눌러 공기가 부항단지안에 흘러들어 자연히 떨어지도록 합니다.

부항료법은 립상에서 모든 질병들에 대하여

응용할수 있으며 그의 적응증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동포여러분, 우리 민족이 창조하여 세세년년 발전시켜온 국가비물질문화유산-부항료법은 국내뿐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습니다.

끝으로 권고합니다. 자신과 건강을 위하여 부항료법을 한번...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국제신선전람관

묘향산의 가을



던 불영대, 대규모불교경전인 《팔만대장경》과 인쇄목판, 탑과 비석, 그림과 공예품 등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는 수많은 유적, 유물들이 보존되어있다.

히 꾸러졌으며 이곳으로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수없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조겨울의 묘향산



어느 마을에 남의 집 김치만 좋다고 하고 제 집 김치면 입에도 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다.
《어머니, 색깔만 낸다고 김치인 줄 알아요. 짭하고 입맛이 돌아야 하지 않나요.》
어머니는 생각끝에 한마디 하였다.
《그럼 이웃집 김치를 좀 얻어오겠다.》
《웁어요. 그렇게 하면 입맛이 돌

유모아

남의것은 다 좋은줄 아느냐

아서겠는데.》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웃집 김치다. 어서 먹어라.》

《어, 시원하다. 김치라는것은 이래야 해요.》

《남의것은 다 좋으냐. 그럼 이 김치를 늘 얻어다 너에게 주마.》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구. 밥이나 많이 먹어라. 부엌에 뒤독 가득 담그어놓았으니.》

《아니 그럼? ...》

* *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3)

평양의 특산 - 평양온반

평양온반은 예로부터 유명한 평양음식의 하나이다. 온반이란 글자 그대로 더운 밥이라는 뜻에서



불리워진 음식으로서 일명 장국밥, 탕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온반은 원래 국에 밥을 말아먹는 우리 민족의 특이한 식생활방식에서 유래된 음식으로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기록에는 온반이

19세기에 편찬된 《시의전서》, 《규곤요람》에 올라있으나 그 음식이 민간에 널리 보급되기는 꽤 오래전부터였다.

평양온반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흰쌀을 깨끗이 씻어 밥을 짓는다.

육두는 껍질을 벗겨 땅에 갈아 지짐을 지진다. 그리고 닭고기는 찬물에 안치여 푹 삶아 큼직큼직하게 찢어놓고 국물은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한소끔 끓인다. 버섯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기름에 볶아 양념에 무친다.

간장에 다진 파와 마늘, 고추가루, 참기름, 참깨가루, 약간의 닭고기국물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그릇에 더운 밥을 담고 닭고기, 버섯을 꾸미로 올려놓은 다음 양념장을 한숟가락 떠놓고 그우에 육두지짐을 놓는다. 다음 실파, 실고추, 실닭알로 고명하고 뜨거운 국물을 밥에 부어서 내거나 곁들어낸다.

평양온반은 오늘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민족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활짝 꽃피워가고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승길

력사인물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6세기 말엽-7세기 초엽에 활동한 고구려의 애국명장이다.

612년 외적이 대군으로 고구려에 침입하여왔을 때 고구려군의 총지휘관으로 되었다.

료하계선과 룡동성에서 고구려군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쳐 외적이 룡동성부근에 못박혀 전진하지 못하게 되자 적군의 우두머리는 빨리 고구려를 굴복시켜보려고 따로 9군(30만 5 000명)을 편성하여 평양성(북평양, 후세의 봉황성)으로 침공케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수군을 평양성부근으로 진출시켜 수륙병진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적의 수군은 공명심에 사로잡혀 저들만으로 평양성을 침공하다가 3만 수천명의 병력을 잃고 쫓겨갔다.

이 무렵 회원진(대릉하 서쪽)에서 출발한 적 9군이 압록수(태자하) 하류로 침공해왔다.

을지문덕은 혼자 적진에 들어가 적장들과 《담판》하는척 하면서 적들의 약점을 알아내었으며 이에 맞게 청야전술, 유인전술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을지문덕의 전술에 걸려든 적들은 무모하게도

평양성 30리밖에까지 기여들었으나 이미 지칠대로 지쳤고 평양성의 방비는 든든하였으며 저들의 수군은 이미 전멸된 상태였다.

이때 을지문덕은 《신통한 전술은 천문을 깨물었고 기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하였네 싸움에서 이긴 공로가 이미 높거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찌하리》라는 풍자시를 지어 적장에게 보냈다.

더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것을 깨달은 적장은 침략군을 물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을지문덕의 지휘밑에 고구려군은 퇴각하는 적에 대한 추격전을 벌려 살수(소자하)에서 일대 섬멸전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살수에서의 큰 참패소식을 들은 적군의 우두머리는 그다음날로 총퇴각을 명령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을지문덕은 612년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를 쟁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의 애국업적은 그후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서 큰 고무적힘으로 되었다.

* * *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6)

- 보현사 관음전 -

보현사 관음전은 묘향산의 보현사 대웅전 동쪽에 있는 건물로서 1042년에 대웅전과 함께 지은것이다.

지금의 관음전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894년에 고쳐지은것이다.

관음전은 대웅전과 함께 묘향산에서 불교를 선전하는데 리용된 중심건물로서 정면 5칸, 측면은 서쪽이 5칸, 동쪽이 4칸으로 흘림기둥우에 2익공바깥도리식두공을 얹고 겹처마합각지붕을 이었다.

이 건물의 동쪽에 달린 정면

4칸, 측면 4칸의 건물은 후에 덧대여 지은것이다.

관음전은 규모가 크고 조형적으로 균형이 잡혀있으며 화반, 계공, 초엽 등 조각이 부드럽고 섬세한것으로 하여 널리 이름났다.

관음전의 단청은 매우 오래된 금단청이며 필치가 우수한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민족의 옛 건축물의 특징을 잘 갖추고있는 관음전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창조적재능을 보여주는 우수한 건축유산으로, 귀중한 재부로 된다.

본사기자



관음전 불상

허백당대사와 힘장사 쌍인

조선봉건왕조시기 인조왕(1623년-1649년)이 나라의 통상을 차지하고있던 때 묘향산 보현사의 허백당대사와 그의 심부름꾼으로 있던 힘장사 쌍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시기 승병대장이었던 사명당에게서 20여년동안 글을 익히고 불교를 탐구하여 허백당이라는 승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리계국은 묘향산 보현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몇해후 외적이 쳐들어올것이라는 소문이 묘향산 보현사에도 들려왔다.

아니나다를가 몇달이 지난 12월 끝내 침략자들의 한 무리가 묘향산으로 밀려든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허백당대사는 수하의 중들에게 쌀 한톨, 소금 한알 남기지 말고 모두 산속의 암자들로 옮기고 다들 피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주변마을에도 연락을 띄워 모든 사람들이 동네를 비우고 산으로 피하게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국상 명림답부나 을지문덕장군이 썼던 유명한 청야전술이었다.

보현사에 들어선 외적들은 텅 비어 더욱 우중충해보이는 절간과 싸늘한 불상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절간과 목재무지에 불을 질러라!》

집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적장의 호령에 여기저기서 불뭉치를 든 군졸들이 미친듯이 돌아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수 없는 웬중이 적장앞에 우뚝 섰다.

《그대의 나라에서도 부처를 정히 모시겠거늘 피물은 창칼을 품고 부처의 면전에서 이런 무도한짓을 하고서야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는가.》

허백당의 도도한 기상과 추상같은 호령에 기가 질린 적장은 칼자루우에 얹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리워 공손히 마주 쥐었다.

《이 산중절간에 스님 같은 고명한분이 계시는줄은 몰랐소이다. 지체없이 물러가겠으니 부디 화가 없게 살피주소.》

허백당은 불뭉치를 집어던지고 황급히 달아나는 오랑캐무리를 통쾌하게 바라보며 부처의 힘이 저 포악한 무리를 끝내 굽혀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허백당의 이 생각은 그날 저녁녘에 곧 허물어지고 말았다.

심부름꾼인 쌍인이라는 청년이 허백당에게 달려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금방 도망가던 오랑캐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었고 하면서 이렇게 절규하였다.

《부처의 이름으로 달랜다고 어찌 원수가 양으로 되겠소이까!》

쌍인의 울부짖음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허백당은 침략자들과의 싸움으로 온 나라 중들을 불러일으키는 의병창의 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나라의 애국적인 중들이 묘향산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4 000명의 의병을 거느린 허백당이 지휘하는 승병부대는 여러 의병부대들과 손을 잡고 싸웠다. 쌍인은 선봉대장이 되

었다.

어느날 퇴각하던 오랑캐의 한 부대가 청강벌에 진을 치고 있다는것을 알아낸 허백당은 승병부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마침 선천의 전세록이 거느린 의병들도 청강벌로 나왔다. 허백당의 승병부대와 전세록의 의병부대는 적들을 앞뒤에서 죽이기 시작하였다.

화살이 비오듯 날아가고 돌격의 함성소리, 적들의 비명소리가 어지러운 가운데 문득 앞장서 적진으로 내달리던 쌍인이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우뚝 서 버리었다. 화살 하나가 얼굴에 와서 박히었던것이다.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적진을 쏘아보던 쌍인은 《음!》하고 소리를 내지르며 그 화살을 번개같이 잡아뽑았다. 쌍인은 상처를 손바닥으로 누른채 칼을 휘두르며 범같이 적진으로 뛰어 들었다. 쌍인의 용맹스러운 모습앞에서 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고 의병들은 용기가 백배하여 싸웠다.

침략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었으며 적장은 상대의 군사들이 남달리 용맹하고 지휘관이 또한 지략이 높았던 그 모든 수수께끼 같은 사실의 배후에 허백당이 있었음을 깨닫고 남은 군졸들을 거느리고 황급히 달아났다.

아름다운 묘향산은 8도승병대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허백당대사 리계국 그리고 힘장사 쌍인과 같은 애국자들을 낳은것으로 하여 슬기와 용맹의 명산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 *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방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면 북남사이에 채택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북남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과 평양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시였다.

북남선언들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리정표이고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으로서 거기에는 북과 남 어느 일방의 리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되어있다.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리정표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참으로 북남선언들에는 북남사이의 적대관계 해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남선언들이 실제적으로 리행되지 못하고 하나의 종이장으로만 남아있게 된다면 언젠가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지나온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는 북남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훌륭한 선언들이 채택되었다 하여도 그것을 철저히 리행하지 못한다면 불신과 대립을 해소할수 없고 결국 조국통일위업이 난관과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는 과정은 곧 북남사이의 신뢰를 두터이하는 과정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위업실현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가는 과정이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지난 주체107(2018)년에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북남선언들을 리행할 때 조선반도의 평화번영도 조국통일도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치고 예술인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공연을 진행한 모습들은 온 겨레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외세의 제재압박책동속에서도 이루어진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한 사업들 역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세계와 력사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 모든것은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방도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지향과 념원이 어린 북남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다그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시효가 없는 죄악

한세기전인 1919년 3월은 조선의 삼천리강토에 살륙의 광풍이 몰아치던 피의 계절이었다.

불법무법의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1910년부터 무단통치에 이행하였다.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도 허용하지 않고 생존권마저 말살하는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총칼부림으로 일관된 무단통치는 결국 1919년 3월 1일에 전인민적인 봉기를 촉발시켰다. 3월 1일 정오를 계기로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3.1인민봉기는 경성(서울)

을 비롯하여 삼시에 온 삼천리강토로 확대되었으며 조선사람이 사는 해외에도 파급되었다.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반일투쟁에 당황망조한 일제침략자들은 이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진압하려고 미쳐날뛰었다.

일제침략자들은 적수공원의 군중들을 탄압하기 위해 많은 군대와 경찰, 헌병 등을 내몰고도 부족하여 본토에서 6개 대대의 정예병력과 400명의 헌병을 더 끌어들이었으며 조선에 거류하고있던 수많은 일본인들에게도 각종 흉기를 쥐여주어 조선인학살에로 내몰았다.

일제침략자들은 총칼과 쇠

갈구리를 마구 휘두르면서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학살하고 체포구금하는 야수적폭압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시위군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일제침략군과 경찰을 맞받아 용감하게 싸웠다.

시위군중은 앞대렬이 쓰러지면 그 뒤대렬이, 뒤대렬이 쓰러지면 또 그다음 대렬이 앞장에 나서면서 전진하였다. 나아린 한 녀학생은 기발을 들었던 바른팔이 일본경찰의 칼에 잘리우자 왼손에 기발을 바꾸어 쥐었고 왼팔마저 잘리워 더는 움직일수 없는 순간까지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선독립

적수궁앞에 펼쳐나선 3.1인민봉기자들



만세!》를 불러 일제군정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삼천리강토의 모든 지역에서 일제는 야수적인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여 3.1인민봉기때 일제의 총칼에 맞아 쓰러진 조선사람들의 수는 무려 10여만명이나 되었다.

피로 얼룩진 일제의 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살륙은 3.1인민봉기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일제는 특히 1930년대이후 전면적인 대륙침략의 길에 들어서면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조선인민에 대한 대규모의 강제련행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기간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교역을 들썩우고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삼았으며 10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40여년간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대학살만행을 비롯한 반인륜적범죄는 시효가 없는 죄악이다.

그러나 오늘 일본반동들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재침야망실현에 열을 올리고있다.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사 용이 금지된 구일본군의 전범기(욱일기)를 국제무대에서까지 빼젓이 내흔들고있으며 조선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놓고 《일본땅》이라고 생역지를

부리면서 날강도적으로 놀아내고있다.

최신에 공격용전투기

들과 각종 미싸일도입을 비롯하여 《자위대》무력을 공격형으로 재배치하고 온 일본령도를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전쟁의 발사대로 만들기에 기승을 부리는 등 일본은 마치 분화구를 찾는 시벨건 암장처럼 군국주의부활과 복수주의야욕, 재침열기에 들떠서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감행한 각종 반인륜적범죄행위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생떼를 쓰며 발광해도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은 절대로 지워버릴수도 감출수도 없다.

조선민족은 세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제의 죄악을 기어이 결산하고야말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강좌장 김병철

3.1인민봉기를 탄압하는 일제기마경찰



고문학살된 3.1인민봉기참가자



3.1인민봉기참가자들을 교수형에 처한 일제





대학살이 감행된 서고리의 무너진 갱입구

서고리폐갱은 오늘도 고발한다

몇해전 평안북도 천마군 서고리 뿡골지역 폐갱에서 일제에 의하여 학살된 수백구의 유해와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길이가 78m이고 높이 2m이며 너비가 1.8m인 이 폐갱안에서는 338구의 유해와 수백점의 유물들이 나왔다. 해당 기관에서 조사, 감정 한 결과 이것은 일제가 패망당시 집단적으로 학살한 조선사람들의 유해라는 것이 정확히 판명되었다.

갱안에서 나온 유해들중 감정가능한 268구의 유해들을 감정 한 결과 그중 남자 260구, 여자 3구, 10살미만의 어린이

5구였다.

유해들속에는 총탄에 의해 관통된 두개골과 아직도 총탄이 박혀있는 대퇴골들도 찾아볼수 있었다.

폐갱에서 나온 고무신들에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대다수의 고무신은 닳아 구멍이 뚫리었으며 구리줄로 꿰맨것도 있었다. 그리고 총탄을 비롯하여 치술, 단추, 바늘, 수저 등과 함께 일제시기 징용자 혹은 형무소에 갇힌 수감자들이 차고있던 나무패쪽들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갱안에 묻힌 사람들

이 다름아닌 조선사람들이라는 것과 당시 광산에서 강제로동을 강요당한 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총탄을 비롯한 일부 유물들을 통하여 당시 폐갱을 앞둔 일제가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갱을 은폐시킬 목적밑에 이곳에 끌려와 일하던 징용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광부들과 기술자들, 지어 그들의 가족까지 갱안에 몰아넣고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린 다 음 갱입구를 매몰해서 잔인하게 학살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하



총탄이 관통된 두개골

고있다.

서고리폐갱에서의 조선인학살만행은 일본인독점자본가 한두사람이 범한 과실이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일제의 국가적인 범죄행위였다.

돌이켜보면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하자원을 자연부원탈탈의 첫째가는 대상으로 삼고 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조선에 들이밀었다.

일제는 1937년 9월 《조선산금령》을 공포하고 실시함으로써 조선에서 생산되는 모든 금을 저들의 은행에 집중시키는 금략탈체계를 확립하였는데 해방전에 출판된 《조선광부일람》에는 일본의 노구찌, 미쯔비시 등 독점자본가들이 천마지구에서 해마다 1t이상의 금을 약탈해갔다고 써여져있다.

이것은 일제가 저들의 탐욕



갱에서 발견된 유골들과 유물들



을 위해 조선사람들을 짐승처럼 부려먹었으며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하지만 오늘까지 일본반동들은 최악으로 가득찬 과거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배상은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살인자들을 비호두둔하고있을뿐아니라 령토팽창야망,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서고리폐갱에서와 같이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령혼들의 가슴속에 서리고 응어리진 원한의 피값을, 일제가 40여년간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저지른 최악의 피값을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해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대결관동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을 가로막고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려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책동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이 반역당의 패거리들은 국회에 제출한 올해 《남북협력예산》에 대해 《퍼주기위 한 깜깜이예산》이라고 걸고들었는가 하면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에 구멍내기 위한 노림수》라고 악담질을 해대는 망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에 앞서서는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국무회의》심의, 의결에 대해 《굴욕적인 대북정책의 결과》라느니 뭐니 하며 마구 걸고들면서 그것을 백지화해보려고 책동하였다.

사실상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심의, 의결된것은 북남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민심의 이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가로막기 위해 광기를 부려댔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대결의 과거를 복구하려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책동은 그야말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에 도전하는 민족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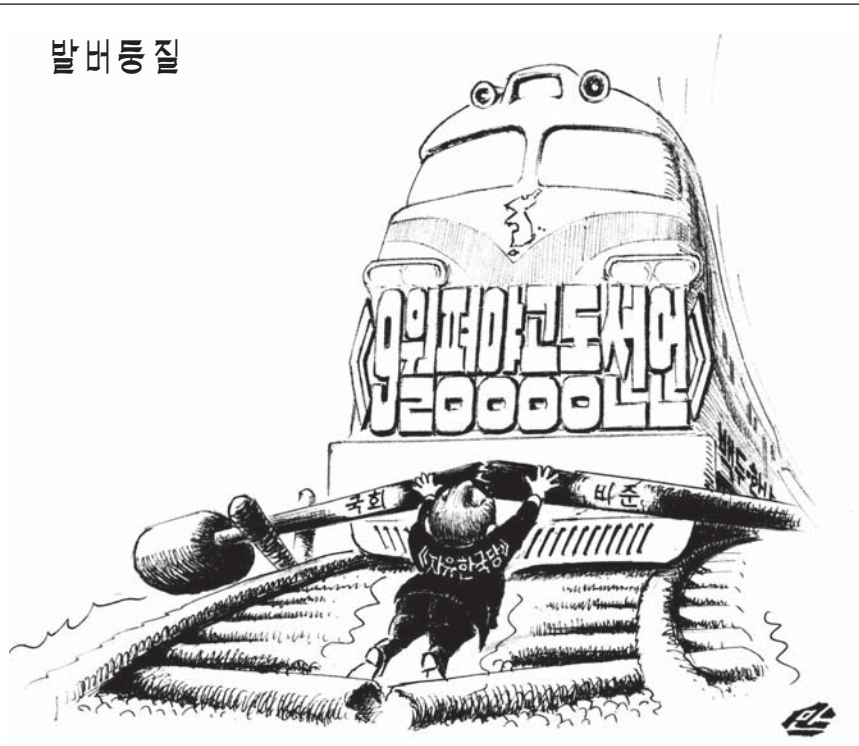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채택된 합의서들이 빈종이장으로 되고 대결의 악순환만 되풀이된것은 바로 민족을 등진 이 반역당의 극단적인 대결소동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뜨거

운 열망에는 아랑곳없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격화시킬 흥심만 골수에 들어찬 이 패당이야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역적무리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동족대결에 명줄을 걸고있는 이런 반역패당을 그대로 둔다면 온 겨레에게 또 어떤 재앙과 화난이 닥쳐올지 모른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반역의 무리 《자유한국당》을 영영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발버등질



《보통강》오토바이

모양에 있어서나 성능에 있어서 나무랄데가 없는 《보통강》오토바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오토바이는 평춘무역회사에서 생산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동자전거(축전지자전거)도 생산하고있습니다. 회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운하동에 자리잡고있습니다.

국제전화: 0085-02-3415942

팩 스: 0085-02-3815842

전자우편: dawn418@star-co.net.kp





칠보산의 해칠보 본사기자 공유일

바다가의 여기저기에 솟은 기암들과 쉬임없이 밀려드는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

이채로운 해칠보의 절경에 반한듯 갈매기들도 쉬이 바다가를 뜨지 못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19803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